

# 담양군, 농어촌 '삶의 질' 도내 최고

### 보건·복지, 문화 등 5개 영역 분석 정주 개선·생활환경 조성 등 성과

담양군이 전남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농어촌 군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담양군은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에서 지난해에 이어 전남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공표되는 국가 통계 기반의 종합 지표다.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를 토대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해 산출한다.

담양군은 이번 평가에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담양군은 다양한 도시재생 및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마을 단위의 공동체 회복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일상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담양읍 원도심과 고서면, 봉산면 등지에서 추



담양군이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에서 지난해에 이어 전남 1위를 차지했다. 담양군 제공

진된 도시재생 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담양군은 최근 총사업비 369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보육·교육·문화·체육·보건·교통 등 생활 SOC를 중심으로 정주 여건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국토교통부 주관 '뉴비리지 공모사업'을 통해 대전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총 250억원을 들여 기반 시설과 주택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담양군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공간을 문화거점시설로 재탄생시켜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장을, 지역민과 방문객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결과는 군민과 공직자, 군의회가 힘을 모아 만든 성과다"며 "삶의 질 지수에 담긴 지표별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기회가 넘치는 활력도시 담양'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 순천시, 생애주기·맞춤형 정원교육 확대 운영

순천시가 정원도시의 자원을 활용한 생애주기·맞춤형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정원을 만나는 '정원치유도시' 구현에 나선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교육,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원치유 프로그램까지 전반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아 대상의 '꼬마정원사' △초등학생 대상의 '미래정원사' △일반 시민 대상의 '시민정원사', '정원관리사', '플랜테리어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해외 원에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는 영국왕립원예협회(RHS) 인증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원치방 프로그램'과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을 위한 '마인드가드닝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정원활동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대표적인 정원치유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순천시가 정원도시의 자원을 활용한 생애주기·맞춤형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은 미래정원사 교육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오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과 개방정원을 잇는 생태여행 프로그램 '오늘부터 그린'을 운영, 정원치유의 가치를 시민 일상 속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순천=박경식 기자

# 내달 7일 장도서 여수재즈페스티벌

여수시는 오는 6월 7일 장도에서 '2025 여수 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행사는 여수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재즈 음악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공연으로, 친환경 소풍 콘셉트로 운영돼 관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신촌블루스의 전설적인 보컬리스트 한영애가 이끄는 '한영애 밴드'와 세계 재즈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겸 보컬리스트 마리아 김이 주축이 된 '마리아 김 켈트'이 무대에 오른다.

감각적인 소리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관객을 사로잡는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1960년대 쿨재즈부터 스윙, 모던재즈까지 아우르는 정제된 음향의 'NS 재즈밴드'가 오프닝을 맡아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나 관람객 안전을 위해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며, 25일부터 여수재즈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에서 1인당 최대 2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



여수시가 6월 7일 장도에서 '2025 여수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지난해 페스티벌. 여수시 제공

# 구례군, 오지마을 노후 전기 설비 교체

구례군은 문척면 토금마을과 중산마을 25가구를 시작으로, 관내 4개 오지마을 100가구의 노후 전기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복지기동대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계층이 많은 오지마을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구례군은 대상 마을을 직접 방문해 각 가구의 전기 설비와 생활 불편 사항을 조사한 후, 콘센트, 누전차단기, 배전함, 전구 등 노후되거나 불량한 전기 설비를 교체하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

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전기 사용량 급증에 대비해 화재 및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척면에 거주하는 고령 노인은 전구 스위치가 없어 매년 전구를 손으로 돌려가며 불을 켜야하는 상황을 확인한 복지기동대는 스위치를 설치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복지 활동이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손석봉 기자

# 곡성군 월봉습지, 한국꼬마잠자리 서식지 확인

국내 최대 2000마리 이상 분포

곡성 월봉습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한국꼬마잠자리' (Nannophya koreana Bae, 2020) 대규모 서식지로 확인됐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국내 곤충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산야생생물자원연구소와 곡성군이 함께 월봉습지에서 확인한 결과 2,000마리가 넘는 한국꼬마잠자리 성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보고 사례 중 최대 규모다.

한국꼬마잠자리는 과거 꼬마잠자리로 불리

며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종으로 여겨졌으나 2020년 지역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신종으로 확인돼 보존 가치가 중요한 상황이다.

한국꼬마잠자리는 몸길이가 1.5cm로 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잠자리로 알려져 있다. 암컷은 화려한 호랑무늬가 있으며, 수컷은 붉은색으로 매우 낮게 비행한다.

이번 대규모 개체군 발견은 월봉습지가 종 보전을 위한 핵심 서식지임이 확인되면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곡성=류성 기자

## 클릭! 고향속으로



### 담양군 무정면지사협, 생필품 꾸러미 전달

담양군 무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정의 달을 맞아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7가구에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행복 한보따리 나눔사업은 라면, 통조림, 고기, 김 등 일상에 필요한 식료품을 꾸러미로 준비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하는 맞춤형 복지 활동이다.

협의체 위원들과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꾸러미를 포장하고, 대상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전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무정면은 복지 안전망을 넓히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향촌복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중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복지를 위한 활동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 담양경찰, 남초등학교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담양경찰서는 최근 담양 남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담양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주최하고 담양경찰서가 주관했으며, 교내 학교폭력·성폭력을 예방해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전담경찰관 이슬 순경은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도박 등 특히 청소년에게 취약한 스마트폰 범죄 유형과 피해 시 대처 방안 등을 설명했다. 게임과 퀴즈 코너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통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서생현 담양 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준법 의식 향상과 안전을 위해 보호·선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일남 기자



### 고흥경찰, 봉래면서 찾아가는 3심 실천 간담회

고흥경찰서는 최근 봉래면 축정1구 마을회관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3심 실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매월 각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근교 교통과장은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농번기철 농기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등을 안내했다. 농기계 안전운행은 당부하고, 운행시 안전모 착용, 보행시에는 안전보행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원 고흥경찰서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 시설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진종언 기자